

## (주)하림

### 파워엘리트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주)하림(회장 김홍국)은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주)하림 파워엘리트 양성과정은 8개월이라는 긴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난 1월 30일 그린바이텍 강당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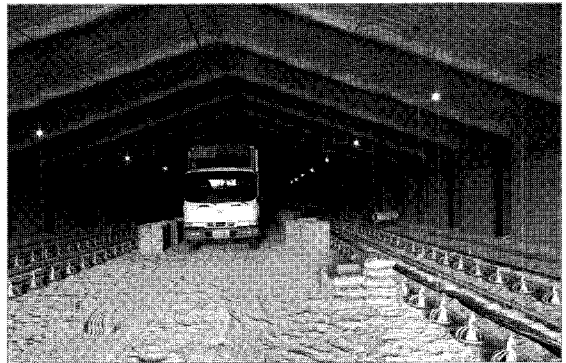
교육기간동안 서울과 익산을 오가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총 교육생 30명 전원이 수료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파워엘리트 양성 과정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준비를 위해 1인 1CEO의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하림의 인재상에 걸 맞는 파워엘리트를 육성하는 교육이다.

특히 파워엘리트 과정 수료자는 시장분석을 통해 회사의 사업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며, 조직내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힘쓸 전망이다.

또 회사의 미래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병아리 분양 특별 점검 실시



(주)하림은 지난 한 달여간에 걸쳐 농가에 우수한 원자재 공급을 위한 병아리 운송의 전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지역소장과 대행소장들은 각 지역에 분양되는 병아리 발생부터 농장 입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양기사와 동행하며 특별 점검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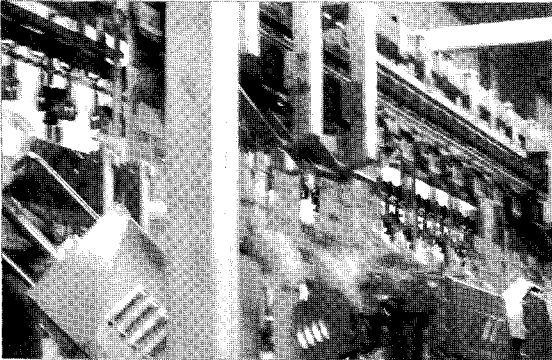
각 소장들은 부화장과 분양차량의 청결, 소독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아리의 복지 상태를 살펴본 다음 운송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프로세스화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점검에서 각 소장들은 "역시 병아리는 하림이다"라는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혹한기에도 갓 태어난 병아리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차 전 열풍기를 가열하는 등 세세한 운송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부화장과 분양차량 모두 5S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우수한 병아리를 안전하게 사육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부분육 발골라인 새단장



(주)하림은 생산성 향상과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분육 발골라인의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이번 설비 교체 작업은 기존의 설비 대비 약 34.4%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설비 교체로 생기는 여유 인력을 다른 공정으로 전환 배치하여 결품 방지를 위한 주문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주)마니커

### 공채 33기 입문교육 시행

(주)마니커(회장 한형석)는 공채 33기 최종합격자 14명에 대한 입문교육을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했다.

현장실습과 합숙교육 등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입문교육은 지난 2월 22일 동두천공장 실습을 시작으로 종계장 및 부화장 실습, 2박 3일간의 합숙교육을 거쳐 오는 3월 10일 모든 과정을 마친



게 된다.

이번 입문교육은 이론 교육보다는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공장 생산직 및 농장 직원들과 함께 맘을 흘리며 애사심을 키우고 마니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현장실습을 마친 직원들은 합숙교육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와 마니커인으로서 꼭 갖춰야 할 소양교육은 물론 정신력과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조직력 개발훈련 등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모든 교육을 수료한 공채 33기 14명은 향후 축산, 생산, 영업 등 중추부서에서 마니커의 핵심 인재로 활약할 예정이다.

### 2010 FOOD EX JAPAN 참가

(주)마니커는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10 FOOD EX JAPAN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주)마니커는 주로 일본 각 지역의 수입업체 및 도매상에 삼계탕 등 수출 주력 제품을 소개,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거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판촉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마니커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삼계탕 수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도 FOODEX JAPAN 참가를 계기로 시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주)체리부로

### 2009 기여이익 창출 성과 부서 시상식 개최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지난 2월 1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기여이익 창출 활동성과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주)체리부로는 변화와 혁신, 핵심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2007년도부터 매해 분기마다 생산능률, 근태현황, 안전관리 등을 종합평가해 생산성을 높인 부서를 선정해 원가절감, 기여이익 활동성으로 나누어 시상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생산부서 중 CM절단파트가 1위, 계류파트가 2위, 냉동파트가 3위를 차지해 각

각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사업본부별 실적금액과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원가절감 및 기여이익 부문에서는 1위 생산본부, 2위 공무렌더링, 3위 경영지원실, 4위 사육본부, 5위 영업본부가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이날 수상 부서 본부장들은 2010년도 목표 관리 및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인식 회장은 회사 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전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후생지원 확대를 통해 체리부로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 무항생제 맛있는 닭' 출시



(주)체리부로는 지난 1월 27일 GS-Retail을 통해 '친환경 무항생제 맛있는 닭'을 출시했다.

지난 2008년 5월 JBP(Joint Business Plan) 체결 이후 정보공유 및 전략수립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속해 온 양사가 최근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추어 친환경 프리미엄 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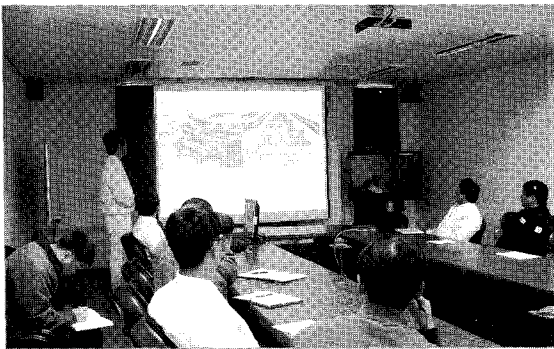
기를 선보인 것이다.

(주)체리부로 마케팅 담당자는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사용을 배제하고 천연물질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건강하게 키운 닭을 생산이력추적이 가능한 첨단공정을 통해 가공한 ‘친환경 무항생제 맛있는 닭’은 최근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로 대변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무항생제 맛있는 닭’은 1kg, 800g 통닭용 제품, 750g, 950g 볶음탕용 제품과 350g, 300g 가슴살, 복채, 왕, 봉 등 부분육 제품 형태로 전국 GS-Supermarket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올품**

**업무개선 회의 실시**



(주)올품(대표이사 변부홍)은 지난해 일본 도요타 연수를 다녀온 생산관리자들을 중심으로 매달 2회에 걸쳐 업무개선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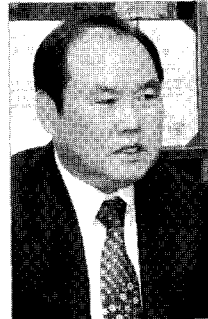
지난 2월 2일 진행된 업무개선 회의에서는 공장 설비 및 공정의 개선사례 발표와 개선해 나아가야

할 지표를 세우며 다시 한번 생산현장의 업무개선 의지를 다졌다.

변부홍 대표이사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한 우수개선사례를 표창하고 끊임없는 개선을 통한 최강원가 구축을 당부했다.

**정우식품(주)**

**제3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



향토기업인으로 계육수출 부문 전국 1위 업체인 정우식품(주)의 이한철 대표이사가 제3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됐다.

이한철 대표이사는 지난 2월 8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소재 푸른언덕리조트에서 열

린 포천상공회의소 정기회의에서 참석해 상임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다.

토박이 향토 기업인이 포천기업인의 모임인 포천상공회의소 수장을 맡게 되면서 세계적 경제 불황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철 대표이사는 “포천상공회의소는 2004년 설립돼 포천지역의 유일한 경제단체로서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포천시의 기업 성장 발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조기에 타결되도록 혼신의 노력과 포천상공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당선소감을 피력했다. 